‘n번방’ 공분 속 연예가 갈수록 날선 목소리

‘성 착취’ 방지 법 개정 팔 걷은 스타들

박보영 “행동으로 옮겨야 변화”
옥주현도 강력처벌 촉구 동참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음란물을 촬영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공유한 ‘n번방’ 사건에 스타들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가해자와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 개정 공론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가수 옥주현은 최근 SNS에 “그 방에 입장한 너희는 모두 살인자”라고 적힌 이미지를 공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견과 정보를 주고받고 행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개설한 포털사이트 카페 ‘n번방 성착취

옥주현

박보영

강력 처벌 촉구 시위’의 대표 이미지다. 옥주현은 “아동 성 착취로 돈을 버는 ‘바퀴벌레’가 많은 이유는 바퀴벌레들을 박멸할 수 없는 ‘법’이 만든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n번방가입자_전원처벌’ ‘n번방_갓갓_포토라인_공개소환’ 등 해시태그를 몰아 게재하는 이른바 SNS ‘해시태그 총공세’에도 동참했다. SNS에 ‘가해자는 지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고 썼다.

연기자 박보영도 팬카페를 통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학대당한 어린 친구들이 있다”며 관련자들의 강력 처벌과 법 개정 촉구 움직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동으로 옮겨야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아동 및 여성 대상 사이버 성범죄의 형량이 가벼운 현실을 향한 비판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지만, 실제 범죄자들에 대한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은 2년(여성가족부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그쳤다.

이처럼 스타들의 비판은 이번 사건의 공론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구속된 직후인 18일 이후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300만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낸 데에 가수 혜리와 조권, 연기자 하연수 등 스타들의 발 빠른 참여와 독려가 힘을 보탰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여성 연예인은 자신들의 SNS를 조주빈이 팔로잉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가수 가인과 모모랜드의 연우, 연기자 이다인 등은 불쾌감을 넘어 공포와 분노를 표했다. 방송인 신아영도 조주빈의 계정을 차단한 뒤 “팔로잉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소름 돋는데 피해자는 어떨까. 그들의 트라우마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더이상 미룰 수 없다”…돌아온 히트 메이커들

에이핑크·(여자)아이들·위너 4월 컴백
코로나19에 가요계 위축 속 정면돌파

‘히트 메이커’들의 컴백 소식이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가요계에 활기가 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음악시장 전반이 위축됐지만 그룹 에이핑크, (여자)아이들, 위너 등이 긴 공백기를 끝내고 활동을 재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가수들이 팬 쇼케이스를 비롯해 팬미팅, 콘서트 등 각종 무대를 취소하거나 아예 컴백 일정을 연기했지만, 이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신곡을 발표하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 가운데 가장 선배격인 에이핑크가 1년 3개월 만에 돌아온다. 지난해 1월 여덟 번째 미니음반을 발표한 이들은 4월 중순 새 음반을 발표한다. 25일 현재 앨범 준비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활동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세’ 걸그룹 (여자)아이들도 4월6일 컴백한다. 이날 세 번째 미니음반 ‘아이 트러스트’를 선보인다. 앞서 3월 새 앨범을 발표하고 4월부터 세계 32개 도시에서 월드투어를 펼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활동 자체를 연기했다. 2018년 데뷔해 그해 신인상 6관왕을 차지하고, 내놓는 곡마다 잇따라 히트시켜 해외에서도 이

(여자)아이들(왼쪽)이 4월6일 세 번째 미니음반 ‘아이 트러스트’로 복귀한 뒤 9일 위너가 정규앨범 ‘리멤버’를 발표한다.
사진제공 | 큐브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

들의 무대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더욱 완성도 있는 음악과 퍼포먼스로 준비하고 있다.

위너의 복귀도 반갑다. 4월9일 정규앨범 ‘리멤버’를 발표한다. 새 앨범은 2018년 ‘에브리데이’ 이후 2년 만이다.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26일 송민호의 자작곡 ‘뜸’을 선 공개한다. 하지만 앞서 취소한 아시아 투어 개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아시아 8개 도시에서 투어를 펼친 뒤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을 미룬 이들은 최근 온라인 중계로 공연을 선보여 96만명이 넘는 이들의 시선을 모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코로나19로 영화계 피해 장기화
영진위·연대회의 지원책 등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영화계 위기감이 심화하는 가운데 영화단체들과 극장, 영화진흥위원회가 머리를 맞댔다. 영화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다.

(사)한국영화감독조합과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11개 영화단체와 CJ CGV 등 5개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이 ‘코로나 대책 영화인연대회의’(연대회의)를 결성했다. 이들은 25일 성명을 내고 ‘영화산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선정’,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 시행’, ‘지원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줄 도산 위기 같은 생계의 위협에 놓인 영화업계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며 “영화발전기금을 활용한 긴급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3월은 물론 4~5월까지 영화 개봉은 물론 극장 관객수 회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4일 하루 극장 관객이 2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로 추락하고, 촬영 중단 등 위기로 이어지면서 현실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 전담 대응 TF’를 설치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25일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영화인들의 일자리 보전과 지원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진성

트롯신들의 ‘흥바람 2020’ | 4 진성

“내리막길 후 평지…작은행복 찾다보면 희열”

온 국민이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요. 이럴 땐 틈만 나면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보세요. 누구나 행복했던 추억이 많잖아요. 인생에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제게 최고의 행복은 과거의 추억들이에요. 요즘처럼 기운이 빠질 때 오랫동안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 제 노래가 히트했을 때를 돌이키곤 한답니다.

가수로서 인정받고 남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가 생긴 덕분이기도 하죠. 제가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로 유명해졌지만, ‘태클을 걸지 마’로도 진성이라는 이름을 알렸거든요. 그때를 떠올리면 힘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내리막길이 끝나고 평지가 나올 것이라 믿고 나만의 추억을 되새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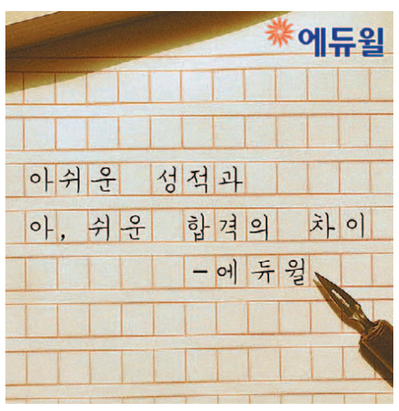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집을 갖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나 자신도 돌아보세요. 작은 행복을 찾다보면 거기서 희열을 느낍니다. 운동도 그래요. 배드민턴은 5분만 해도 온몸에서 땀이 줄줄 나요. 그렇게 운동하고 나면 머리가 아주 개운해집니다.

정리 | 이정연 기자

‘성폭행 혐의’ 김건모 검찰 송치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52)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모는 지난해 12월 여성 A씨로부터 관련 혐의로 검찰에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김건모는 2월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그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주4일 근무제가 선사하는 ‘드림데이’

“좋은 복지, 우수한 인재와 성과로 이어질 것”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 ‘주 4일 근무제’를 올해 전 부서에 확대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기존 5일 근무에서 4일로 근무일수가 줄어들며 생기는 하루의 휴일을 에듀윌은 ‘드림데이’로 이름 지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주 4일 근무제’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부서별로 대비를 시작한 에듀윌은 지난해 6월부터 준비가 완료된 부서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범 적용을 실시했다. 이는 무리한 ‘주 4일 근무제’ 시행이 자칫 기업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에듀윌 관계자는 “실제로 초반에는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정착된 이후에는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주 4일 근무제를 적용 중인 부서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6%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초 진행한 자체 평가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 부서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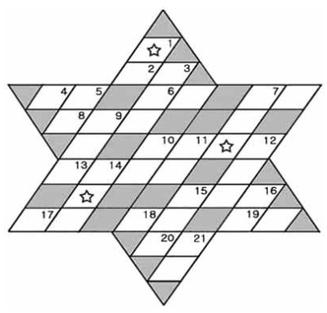
박명규 에듀윌 대표이사는 “좋은 회사, 가치 있는 회사가 된다면 훌륭한 인재 발굴은 당연히 뒤따라 오는 것”이라며 “좋은 복지는 우수한 인재의 영입으로, 우수한 인재는 좋은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면 개인과 회사는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주 4일 근무제 도입의 이유를 밝혔다.

장기근속 포상, 성과급 지급, 포상휴가 등 에듀윌이 추진 중인 ‘꿈의 직장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강주현의 퍼즐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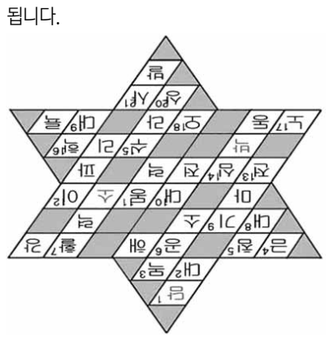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2.설이나 추석 같은 것을 앞둔 긴요한 시기. 04.이부자리와 베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 06.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07.비탈진 곳을 미끄러져 내려오거나 내려감. 08.기다리는 곳. 10.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음. 13.온 마음과 온 힘. 15.수로·하천·운하 따위의 물이 흐르는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 17.몸을 움직여 일을 함. 18.도둑이나 죄인을 묶던 붉고 굵은 줄. 19.지구상의 커다란 육지. 20.자기보다 벼슬이나 지위가 위인 사람.

■ 세로 열쇠 01.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함. 03.나무로 가구·창문 따위 물건을 만드는 곳. 05.사람이 누워 잘 수 있도록 만든 가구. 07.활동의 힘이 되는 본바탕. 09.사람으로 말을 만들어 겨루는 경기. 10.여러 나라가 참가하여 넓은 지역에 걸쳐 큰 전쟁을 벌임. 또는 그런 전쟁. 11.전기 또는 자연에 있는 에너지를 쓰기 위하여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꾼 것. 12.나무나 풀의 살아 있는 낱 잎. 14.심장이 주기적으로 오므라졌다 부풀었다 하는 운동. 15.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상을 높여 이르던 말. 16.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21.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타 이름이 됩니다.